

서면답변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위원	유인환위원
답변자	평창군수 (기획감사실장)	답변일자	2006. 11. 30
회의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세계음식문화단지의 향후 추진계획 및 관계자 방문 계획

답변내용

- 대화면 상안미리에 유치하려는 세계음식문화단지의 향후계획 및 관계자 방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그간 민간투자자(TS&G 홀딩스)의 자금부족으로 부지매입 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매입 계약이 해지되거나 법원경매가 진행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 특히 사업주체인 (사)한국음식관광협회의 재원이 빈약하고 사업의 대부분을 민간투자자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본 사업의 특성상 투자자의 자금부족은 사업자체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유지(약6만평)가 금년 11. 6일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낙찰자가 당초 민간투자자였던 TS&G 홀딩스와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낙찰자 또한 본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 그러나 '06. 11.27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자료별첨)과 관련하여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협회측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 부지인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동사업 참여방식이고,
 - 설계용역 발주 등은 협회의 재정상 현실적으로 힘들어 향후 투자자가 확보되었을시 가능할 것이며
 현재로서 그 시기는 미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따라서 군에서는 12월중 사업주체인 (사)한국음식관광협회에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향후 사업추진일정 및 부지인수 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 등 본 사업을 종합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사업주체 및 낙찰자를 방문·면담할 계획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 구체화

평창 상안미리 29만평 부지 인수...내달 설계용역 발주

한국음식관광협회

지난 1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계획은 지난 1월 사업을 추진한 (주)티에스엔지 홀딩스, (사)한국음식관광협회와 평창군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안미리 일대 29만여평의 부지에 추진하기로 했

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어려움이 차하며 담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한국음식관광협회에서 부지를 인수 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할 계획으로 사업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사)한국음식관광협회는 지난 25일 강민수 회장과 관계자들이 대화면을 방문, 유인환 군의회 부의장, 박기래 세계음식문화단지 대화면추진위원장, 김용수 면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한국음식관광협회는 이달중으로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부지 인수문제를 마무리 하고 내달 설계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세계음식문화단지는 세계음식문화촌, 한국음식문화박물관,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장, 전통음식문화교육관 및 연구관, 한국조리사관대학교를 비롯,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될 전망이다. **평창/신협태**